

축구

2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제2979호

대구 FC, 창단 16년만에 첫 FA컵 우승 | 시민구단의 유쾌한 반란, 그리고 새로운 도전



대구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우승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그것도 K리그를 넘어 아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과도 같은 우승이다. 8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KEB하나은행 FA컵' 결승 2차전 홈경기에서 울산현대를 2-1로 꺾고 원정 1차전 3-0 승리를 포함해 2전승으로 우승한 대구 선수단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OK, 잘 대구 있어”

〈잘 되고 있어〉

1·2차전 최종 5-1 울산 꺾고 환호

끈끈한 조직력과 독심의 팀 컬러
제자들 기 살려준 안드레 리더십
구단도 '잘 대구 있어' SNS 응원
내년엔 ACL 출전·전용구장 입주

K리그1 시민구단 대구FC가 강렬한 역사를 썼다. 2002년 창단 이후 16년 만에 처음 FA컵 정상에 올랐다. 대구는 8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2018 KEB하나은행 FA컵' 결승 2차전에서 3-0 패승을 기록, 1·2차전 합계

5-1로 사상대 폭대기에 섰다. 이날 득점포를 가동한 대구의 브라질 공격수 세징야는 대회 최우수선수(MVP)와 득점상(5골)을 싹쓸이했고, 대구는 우승 상금 3억원을 받았다. 솔직히 대구를 둘러싼 축구계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다.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로 손꼽혔다. 그러나 퍼포먼스는 대단했다. 2016시즌 K리그2에서 승격한 대구는 특유의 팀워크와 끈끈한 조직력으로 확실한 경쟁력을 보였다. 올 시즌 전반기에 부진했던 대구는 정규리그 이후 진행된 스플릿 라운드에서 그룹B(7~12위)로 내려앉았으나 생존경쟁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보란 듯 흔들리지 않는

목심으로 온갖 역경과 위기를 이겨냈다. FA컵은 대구에게 보너스 무대가 아닌, 기회의 장이었다. 내세울만한 스타 플레이어는 많지 않지만 선수단은 푼푼 뭉쳤다. 2014년부터 팀을 이끌어온 조광래 대표이사과 안드레(브라질) 감독은 제자들의 기운을 북돋아줬고, 자신감을 심어줬다. 대구는 최근 구단 자체 소셜네트워크커뮤니티(SNS) 채널을 통해 '대구(되)고있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계획대로 대구있어' '잘 대구있어' 등의 재미있는 문구로 팬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실제로 대구의 모든 계획은 착착 맞아 떨어졌다. FA컵 제패로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 직행

의 기쁨을 맛봤다. 여기에 클럽하우스와 1만2000석 규모 축구전용경기장(가칭 포레스트 아레나)을 건립해 내년에 동지를 옮긴다. 내실에 인프라까지 장착한 셈이다. 추억이 가득한 대구스타디움과의 이별은 아쉽지만 전용구장은 대구의 숙원사업이었다. K리그를 넘어 아시아로 향하게 된 대구는 ACL 무대에 출전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미 조 대표는 새 시즌 구상에 여념이 없다. 선수단 리빌딩부터 업무가 산적하다. "모두가 고개를 저을 때 우리는 희망을 찾으려 했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ACL은 우리에게 거쳐 가는 무대가 아닌, 또 다른 목표를 향하는 기회"라며 조 대표는 밝은 내일을 그렸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윤덕여 감독

프랑스·노르웨이와 한 조 윤덕여호 16강 '가시밭길'

1승 1무 거뒀야 토너먼트 진입 가능

여자월드컵 2회 연속 16강 진출을 향한 태극낭자들의 당당한 도전이 시작됐다. 윤덕여(57) 감독이 이끄는 한국여자축구대표팀은 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9 국제축구연맹(FIFA) 프랑스 여자월드컵 조 추첨 결과, 프랑스(3위)~노르웨이(13위)~나이지리아(39위)와 A조에 편성됐다. 윤 감독은 "유럽 두 팀과 경쟁하는 상황은 피했으면 한다"는 조심스런 희망을 전했지만 난적들과 16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FIFA랭킹 14위의 한국은 내년 6월 8일 파리에서 개최국 프랑스와 대회 개막전을 치러야 한다. 쉽지 않은 도전이다. 역대 세 번째 월드컵 본선을 밟은 대표팀은 2015년 캐나다 대회에서 조별리그 1승1무1패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는 영광을 맛봤으나 당시 프랑스에게 0-3으로 대패한 기억이 있다. 내년 6월 12일 격돌할 나이지리아도 여자월드컵 본선에 7차례 올랐던 저력의 팀이고, 내년 6월 18일 맞설 노르웨이는 전통의 강호다.

일단 윤 감독이 염두에 둔 최소 승점은 4점이다. 1승1무는 올라야 토너먼트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24개국이 경쟁하는 여자월드컵은 각조 1~2위가 16강에 직행하고,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국 이 와일드카드 자격을 얻는다. 윤 감독은 "쉽지 않은 조 편성이 나왔다. 그래도 꼭 승점을 얻겠다. 프랑스와 1차전에 따라 남은 두 경기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여자대표팀의 월드컵 마스터플랜은 나왔다. 윤 감독은 오스트리아 등 4개 지역을 점점하며 월드컵 개막에 앞서 5월 진행될 사전전지훈련 캠프 후보지를 답사한다. 내년 1월은 중국에서 열린 4개국 국제친선대회에 참가하고, 2월에는 호주로 떠나 두 차례 원정 평가전 시리즈에 입한다. 4월부터는 강화훈련을 시작하고, 3개국을 국내로 초청해 친선대회를 겸한 스파링 매치 업을 소화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아! 부산… 승강 PO서만 세번째 눈물

3년전엔 강등·작년엔 승격 불발
올해 한파속 반팔 투혼에도 눈물

K리그2 부산 아이파크는 2013년 도입된 승강 플레이오프(PO)와 유독 악연이 깊다. 2015년 K리그1 11위에 그친 뒤 치른 승강 PO에서 수원FC에 발목이 잡히며 기업 구단 최초로 K리그2 강등이라는 굴욕을 맛봤고, 2년간 절치부심한 뒤 다시 나선 지난해 승강 PO에서마저 K리그1 상주 상무에 패

하며 승격이 좌절되고 말았다. 지난 시즌 도중 고(故) 조진호 감독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부산은 올 시즌을 앞두고 최윤겸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하며 반격의 칼날을 갈았다. 그리고 올해 꾸준한 호성적을 이어가면서 전제 레이스를 3위(승점 59·15승14무8패)로 마치고 승격의 희망을 다시 키웠다. K리그2 플레이오프에서 대전 시티즌을 3-0으로 누르고 승격 PO로 진출한 부산은 그러나 올해에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F

C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인 6일 1차전에서 1-3이라는 뼈아픈 패배를 당한 뒤 9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원정 2차전에서 1-1로 비기면서 1부1패 최종합계 스코어 2-4로 K리그1 승격이 무산됐다. 2년 연속 좌절이기에 더욱 가슴 아픈 결과였다. 부산 선수들은 이날 적지라는 부담감 속에서도 투지를 잃지 않았다. 특히 김문환과 호물로, 구현준, 김현성, 김명준 등 주축들은 체감기온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서 반팔 투혼을 펼치며 의지를 다졌다. 이러한 의기투합은 그라운드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승격을 위해선 최소 3-0 완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부산 선수들은 초

반부터 서울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소극적으로 나선 상대와의 기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그러나 굳게 닫힌 서울 골문을 연속해서 흔들지 못하면서, 결국 부산은 원정팬들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부산 지휘봉을 새로 잡은 뒤 팀을 승격 턱 밑까지 이끈 최윤겸 감독은 아쉬움 대신 고마움을 제자들에게 전했다. 최 감독은 "부산을 1부리그로 승격시키지 못해 팬들께 죄송하다. 결과는 아쉽게 됐지만 선수들은 모두 투혼을 발휘했다"며 "올 시즌 크고 작은 약재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잘 싸워줬다"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상형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박항서 축구와 사랑에 빠진 베트남

10년만에 스즈키컵 결승행 견인차
부상선수에 비즈니스석 양보 감독

박항서(59)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축구대표팀이 다시 한 번 베트남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지난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18 아세안축구연맹(AFP) 스즈키컵 준결승 2차전에서 필리핀에 2-1로 승리를 거뒀다. 1·2차전 합계 4-2로 앞선 베트남은 결승에 오르는 성과를 이뤄냈다. 베트남이 스즈키컵 결승에 오른

것은 2008년 이후 무려 10년 만의 일이다. 베트남은 지난해 박 감독 부임 후 올 해 동안 참가하는 대회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데에 이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4강 진출을 이뤄냈다. 베트남은 국제축구연맹(FIFA) 12월 랭킹에서 100위를 차지했다. 박 감독 부임 직후였던 2017년까지만해도 베트남의 FIFA 랭킹은 112위였다. 축구대표팀의 경기 때마다 하노이, 호치



베트남축구대표팀 박항서 감독(오른쪽)이 8일 스즈키컵 결승 1차전 원정경기를 위해 말레이시아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부상당한 선수를 위해 자신의 비즈니스석을 양보했다. 선수 대신 이코노미석을 이용한 박 감독을 향해 베트남 언론과 팬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캡처 | TIN THE THAO

민 등 베트남 주요도시는 축구 열기로 뜨거워진다. 베트남 국민들은 베트남 국기와

박항서 감독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을 들고 거리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마치 2002한일월드컵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한국 사람이 하노이, 호치민 거리를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를 외치며 반길 정도다. 박 감독은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원정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에게 비즈니스석을 양보한 것이 알려지면서 베트남 국민들은 또 한번 엄청난 감동을 받은 듯 열광하고 있다. 스즈키컵 결승에서 말레이시아와 만나는 베트남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결승 1차전을 치른다. 결승 2차전은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1부 잔류도 행복한 FC 서울

▶1면에서 이어집니다

초반부터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해 부산에 주도권을 내준 서울은 선제골을 허용한 뒤에는 더욱 기를 펴지 못했다. 후반 중반까지 이렇다할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큰 스코어자로 이어야하는 부산은 한 골만 더 추가하면 완전히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하지만 골 결정력 부족으로 추가골을 뽑는 데 실패했다. 반면 서울은 후반 교체 투입된 박주영이 추가시간에 하프라인 부근에서 상대 골키퍼가 나온 틈을 타 길게 찬 볼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즌 마침표와 함께 잔류를 확

정했다. 서울 최용수 감독은 "우리가 하고자하는 경기의 반도 못했다. 내용면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축구는 결과의 싸움이다. 원정에서 3-1로 이긴 게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선수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 팬들에게도 죄송하다"면서 "준

비를 잘 해서 내년 시즌에는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감독이 밝힌 내년 목표는 2020년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출전권이다. 그는 "이제부터 서울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준비하겠다. 내년에 ACL 진출권도 따야 하고, 더 큰 목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